



▶ 이 장에서 배울 내용

- 비교우위로부터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리
- 국제적 비교우위의 원인
- 국제무역으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리고 이득이 손해보다 큰 이유
- 관세와 수입할당제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총여유를 감소시키는 원리
- 가끔 보호무역이 각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이유와 국제무역협정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

어디서나 스마트폰



Imaginechina/Corbis



Viad Teodor/Shutterstock

스마트폰의 생산과 소비는 오늘날과 같이 국제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초국제화 세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나 는 열아홉에 사랑에 빠졌죠. 이제 우리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케이드 파이어의 2013년 히트곡의 가사는 모든 사람이 정말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것이 2007년인데 그 이후로 아이폰과 그 경쟁제품들은 어느 곳에 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그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 애플이 미국 회사니까 “미국”이라고 대답했다면 그 대답은 대체로 틀렸다. 애플은 제품을 개발하지만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은 주로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에 위탁한다. 아이폰이 조립되는 것은 중국이지만 “중국”이라는 대답도 맞다고 할 수 없다. 부품이 금속과 유리 케이스 안에 조립되는 마지막 공정은 아이폰의 가치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폰4의 평균 공장가적인 229달러 중 중국 경제에 돌아가는 것은 대략 10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디스플레이와 메모리칩을 생산하는 한국에 돌아갔다. 세계 곳곳에서 주문한 원재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그리고 가격 중 가장 큰 부분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의 이윤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체로 연구, 개발, 디자인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 아이폰의 출처는 어디인가? 여러 곳이다. 그리고 이는 아이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타고 입고 먹는 자동차, 의복, 식품까지 대부분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복잡한 공급망의 결과물인 것이다.

항상 이래 왔던 것일까? 그 대답은 긍정과 부정 반반이다. 대규모 국제무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세기 초반에 런던의 중산층 주민들은 캐나다산 밀로 만들어진 빵과 아

르헨티나 팜파스 평원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먹고 호주산 양털과 이집트산 면화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었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통신 기술의 발달과 무역 촉진 정책이 결합하여 아이폰을 우리 코앞까지 공급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공급망이 가능해지고 국제무역이 급증하는 초국제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은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일이다. 그 결과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무역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국민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무역의 경제 원리를 살펴본다. 우선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왜 국제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비교우위 모형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한 번 비교우위 모형을 간략히 복습하고, 국제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해외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입**(imports)이고, 해외로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exports)이다.

국제화(globalization)란 국가 간 경제적 연관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초국제화(hyperglobalization)란 극도로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비교우위와 국제무역

미국은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한다. 동시에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국가에 판매한다. 해외로부터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입**(imports)이고, 해외로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export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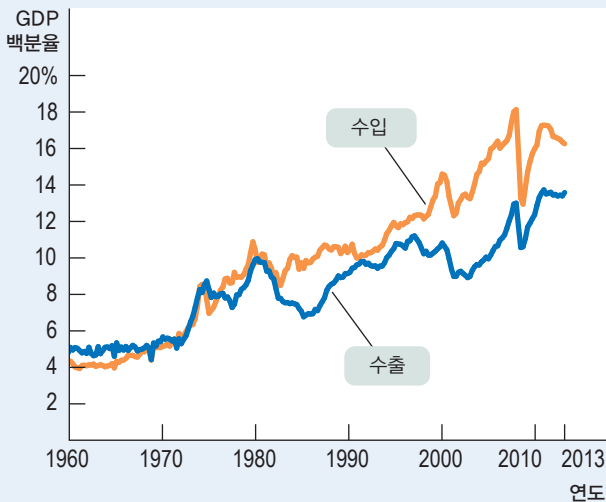
머리말 이야기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 경제에서 수입과 수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모두 미국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림 5-1(a)>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그림 (b)에는 수입과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 나라에 대해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여러 국가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미국에서보다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예외이다.)

국가의 경제적 교류는 국제무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투자자가 다른 국가에 자금을 투자하는 일도 흔하고, 다국적기업들이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갖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모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국가 간 경제적 연관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흔히 **국제화**(globalization)라 한다. 그리고 머리말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경제의 어떤 부문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국제무역으로 타 부문과 구별된다. 이러한 **초국제화**(hyperglobalization)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생산 공급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급망에서는 제품의 각 생산 단계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통신과 운송 기술의 진보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장의 ‘기업사례’에서 실제 사례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주로 국제무역에 관심을 둔다.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와 경제학자들이 무역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비교우위의 개념을 다시

그림 5-1 증가하는 국제무역의 중요성

(a) 1960~2013년 미국의 수입과 수출



(b) 2012년 여러 국가의 수입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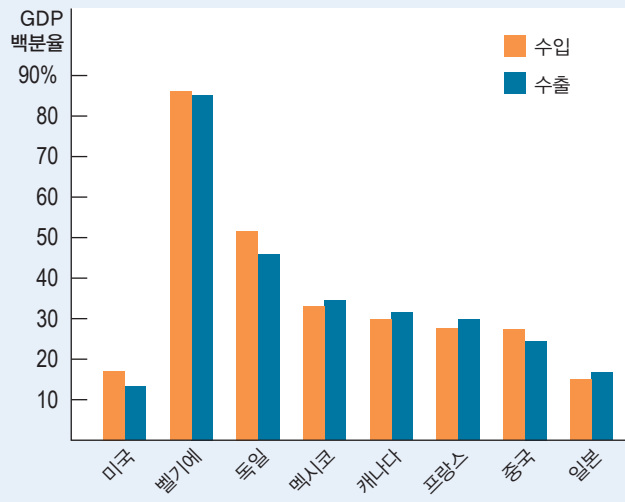


그림 (a)는 지난 50년간 수출과 수입이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b)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 대외무역이 미국보다 상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Bureau of Economic Analysis[그림 (a)],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그림 (b)].

살펴보기로 한다.

생산가능성과 비교우위 : 복습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든 다른 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노동, 토지, 자본 등—을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 스마트폰의 기회비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특별히 낮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대부분이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양식장에서 들여오고 있는 새우를 고려해 보자. 새우는 기후가 알맞고 갑각류 생산에 적당한 해안지역이 많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반면에 다른 재화들은 베트남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미국처럼 첨단기술제품 생산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항공기 같은 재화로 표시한 새우 1톤의 기회비용은 베트남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이처럼 분명치 않다.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일은 미국에서도 중국만큼 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굳이 비교한다면 중국의 전자제품 노동자들이 같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노동자들은 자동차나 화학제품 같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 노동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조립하게 함에 따라 다른 재화 생산이 감소하는 양은 미국 노동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조립하게 했을 때에 비해 작다. 즉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기회비용이 미국에서보다 작다.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한 것을 유의하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산’ 스마트폰 가치의 대부분은 사실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예시를 간단히 하기 위해 단순히 중국이 스마트폰의 모든 생산을 담당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데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제2장에서 배운 비교우위의 정의를 다시 적어 보자. 한 국가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으면 그 국가는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림 5-2〉는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예를 가상의 숫자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포드 트럭 두 재화만이 생산·소비되며, 세상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가상적인 생산가능곡선을 보여 준다.

제2장에서와 같이 생산가능곡선이 〈그림 2-2〉처럼 바깥쪽으로 휘어진 좀 더 현실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림 2-1〉과 같이 직선이라고 가정하여 단순화하였다. 직선 모양은 트럭으로 표시한 각국의 스마트폰 기회비용이 일정함—두 재화의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이 일정하여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라는 가정하에 국제무역을 분석하는 것을 가리켜 19세기 초에 최초로 이 분석을 사용한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이름을 따서 **리카도의 국제무역 모형(Ricardian model of international trade)**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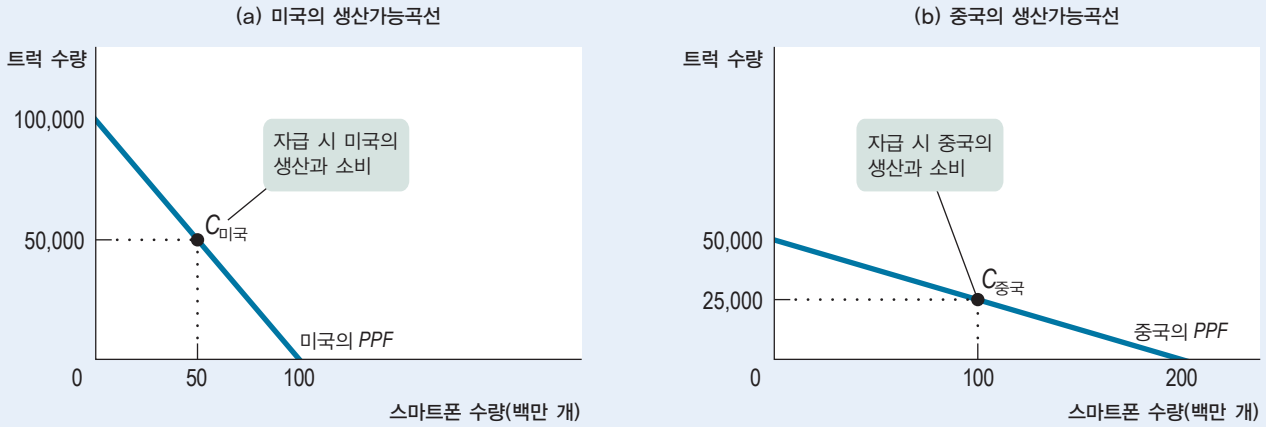
〈그림 5-2〉에는 미국이 스마트폰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트럭 10만 대를 생산하거나 트럭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스마트폰 100단위(한 단위는 백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생산가능곡선(PPF)의 기울기는 $-100,000/100 = -1,000$ 이다. 즉 미국이 스마트폰을 한 단위(백만 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트럭 1,000대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조립의 기회비용이 더 낮아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다.

리카도의 국제무역 모형(Ricardian model of international trade)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국제무역을 분석한다.

그림 5-2 비교우위와 생산가능곡선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 한 단위(백만 개)의 기회비용은 트럭 1,000대이다. 스마트폰 한 단위가 추가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트럭 1,000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 한 단위(백만 개)의 기회비용은 트럭 250대이다. 즉 스마트폰 한 단위가 추가로 생산될 때마다 포기해야 하는

트럭은 단지 250대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트럭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중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무역이 없을 때 각국은 자기가 생산한 것만 소비할 수 있다. 미국은 5만 대의 트럭과 50단위의 스마트폰, 중국은 2만 5,000대의 트럭과 100단위의 스마트폰이다.

자급(autarky)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스마트폰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트럭만 5만 대를 생산하거나 트럭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2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50,000/200 = -250$ 이다. 즉 중국이 스마트폰을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트럭 250대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자급**(自給, autarky)이라 한다. 미국은 자급상태에서 스마트폰 50단위와 트럭 5만 대를 생산 및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또 중국은 자급상태에서 스마트폰 100단위와 트럭 2만 5,000대를 생산 및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두 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을 때 당면하고 있는 상충관계가 <표 5-1>에 요약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트럭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으로 표시한 트럭의 기회비용이 중국에 비해 더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트럭 1대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스마트폰 1,000개인 반면 중국의 기회비용은 4,000개이다. 동시에 중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1단위의 기회비용은 트럭 250대인 반면 미국은 트럭 1,000대이다.

표 5-1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및 트럭의 기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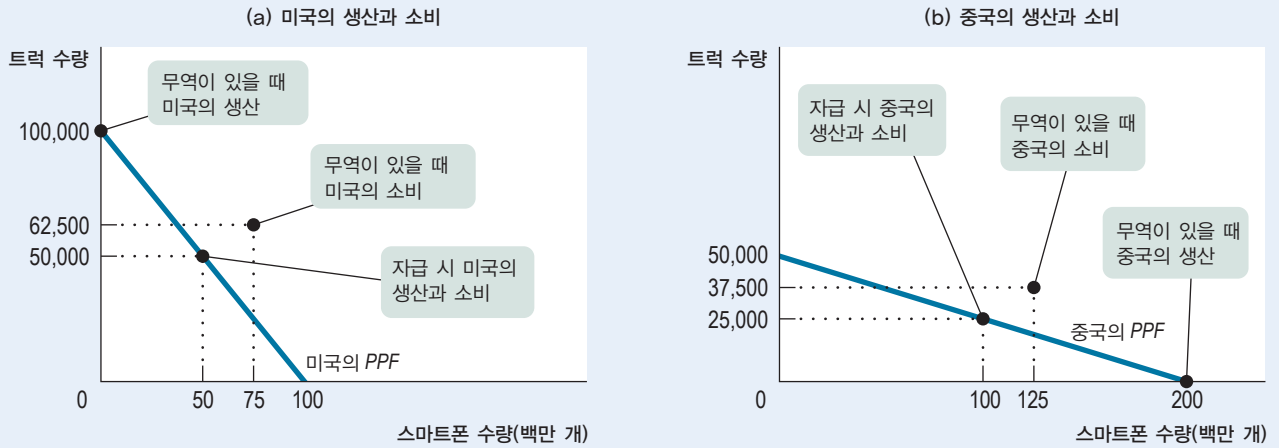
	미국의 기회비용	중국의 기회비용
스마트폰 백만 개	트럭 1,000대	> 트럭 250대
트럭 1대	스마트폰 1,000개	< 스마트폰 4,000개

우리가 제2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각국은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나아질 수 있다. 한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특화하여 그 재화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원리를 살펴보자.

국제무역으로부터의 이득

<그림 5-3>은 가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를 통해 두 나라가 교역 전보다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어떻게 두 나라 모두 특화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림 (a)는 미국, 그림 (b)는 중국을 나타낸다. 각 그림에는 <그림 5-2>에서 가정했던 자급하의 생산과 소비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5-3 국제무역으로부터의 이득



국제무역으로 인해 두 재화의 세계 총생산량이 증가하여 두 국가 모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국제무역으로 각국은 생산의 특화를 하게 된다. 미국은 트럭 생산에 특화하고 중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특화한다. 두

재화의 세계 총생산량이 증가하여 두 나라 모두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의 가능성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미국의 경우 트럭,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만을 생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두 재화의 생산이 자급 때보다 많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각국은 두 재화 모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2〉는 무역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요약해서 두 나라가 어떻게 이익을 보게 되는지 보여 준다. 표의 왼쪽에는 무역 전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생산하는 자급상태가 표시되어 있다. 표의 오른쪽에는 무역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무역 후 미국은 트럭 생산에 특화하여 트럭 10만 대를 생산하고 스마트폰은 생산하지 않는다. 중국은 스마트폰 생산에 특화하여 스마트폰을 200단위 생산하고, 트럭은 생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두 재화의 세계 총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표 5-2〉의 오른쪽 무역 후 소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비록 스마트폰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럭과 스마트폰 모두 무역 전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중국도 트럭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재화 모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인은 무역으로 인해 자급자족, 즉 각국이 소비하는 재화

표 5-2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는가

		자급 시		무역 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무역으로부터의 이득
미국	스마트폰(백만 개)	50	50	0	75	+25
	트럭	50,000	50,000	100,000	62,500	+12,500
중국	스마트폰(백만 개)	100	100	200	125	+25
	트럭	25,000	25,000	0	37,500	+12,500

의 구성 그대로를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생산이 증가하여 양국 모두의 생활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예에서 무역 후 두 나라에서 소비하는 재화의 조합은 단순히 가정에 의해 선택되었다. 실제로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소비는 주민들의 선호와 국제시장에서의 상대가격—다른 재화로 표시된 한 재화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트럭으로 나타낸 스마트폰 가격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에서 그 가격은 암묵적으로 주어져 있다. 중국은 미국이 소비하는 스마트폰 75단위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중국이 소비하는 트럭 3만 7,500대를 받으므로 스마트폰 1단위는 트럭 500대와 교환된다. 이로부터 국제시장에서 트럭 1대의 가격은 스마트폰 2,000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상대가격이 만족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은 어느 국가도 자급상태에서 한 재화를 얻는 데 드는 기회비용보다 높은 상대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스마트폰 1단위를 수입하는 데 트럭 1,000대 이상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트럭 1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4,000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제 국제무역의 상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다음 절에서 국제무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먼저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성격을 더 깊이 살펴보자.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베트남이나 태국이 새우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다. 베트남은 미국에 비해 (걸프해 연안을 보더라도) 새우 양식에 더 적합한 열대기후를 갖고 있으며 사용가능한 넓은 해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새우를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미국이 왜 이런 재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다. 기후나 자원 어느 것을 보더라도 중국이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데 특별히 유리할 것이 없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조립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은 미국이 중국보다 더 적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에서 조립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역에서의 이득이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데 미국이 중국보다 더 적은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중국 전자제품 노동자의 생산성이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보다 낮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 즉 이

예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회비용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낮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자제품 산업을 보면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미국 노동자보다 더 낮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는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미국 노동자보다 훨씬 더 낮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1개를 생산하는 데 많은 노동력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재화를 그리 많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그 반대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적게 든다고 해도 그것을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를 많이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중국이 미국보다 낮다. 가전제품 생산에 있어 미국이 절대우위는 갖고 있지만,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Ponchai Kitiwongsakul/AFP/Getty Images

베트남과 태국은 열대기후로 인해 새우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가전제품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가전제품에 있어 중국의 비교우위의 원인은 세계시장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나타나 있다. 한 국가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므로 고용주들 간의 경쟁을 통해 전반적으로 임금이 높아진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얻고자 하는 경쟁이 심하지 않아 임금률도 낮다.

다음의 ‘국제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과 임금률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낮은 임금률로 인해 중국은 가전제품과 같이 생산성이 적당히 낮은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비용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보다 더 싼 값으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저임금 저생산성 경제와 미국 같은 고임금 고생산성 경제 사이에 발생하는 무역은 흔히 두 종류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하나는 빈곤노동의 오류라는 것으로 고임금 국가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면 수입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해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는 착취노동의 오류라는 것으로 가난한 수출국의 노동자들은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므로 무역이 이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오류들은 모두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저임금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비록 이 상품들에 대한 비용의 우위가 저임금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역이 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즉 두 국가 모두 무역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결론은 대안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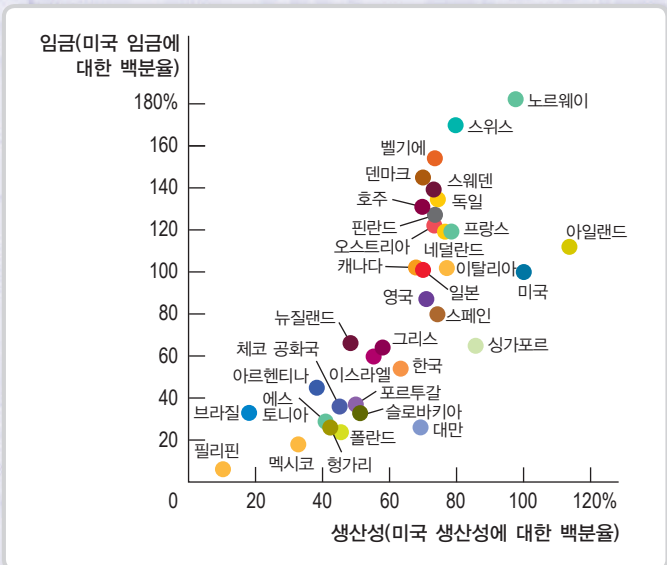
국제비교

세계의 생산성과 임금

빈곤노동의 오류와 착취노동의 오류가 정말 오류일까? 그렇지 않다. 가난한 국가의 저임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성이다.

그림은 여러 국가의 2012년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생산물의 가치(GDP)로 측정]과 임금(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여로 측정)을 보여 준다. 생산성과 임금 모두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었다. 예컨대 일본의 생산성과 임금은 각각 미국의 70%와 101% 수준이다.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르웨이는 생산성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단순 비교는 가난한 국가의 노동비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저임금으로 인한 우위는 대부분 저생산성에 의해 상쇄된다.

출처 : The Conference Board, Penn World Table 8.0.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는 어떤 재화 생산에 있어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된 생산요소가 무엇 인지를 나타낸다.

헷서-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에 따르면, 한 국가는 그 국가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에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건 낮은 임금을 받는다. 부유국의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한 단계 높아진 직업이 될 수 있다.

저임금 수출에 의존하는 국제무역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초저임금 국가에 잘 적용된다. 예컨대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이 저임금에 기초한 의류 수출을 할 수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을 것이며 아마 굶주림도 발생했을지 모른다.

비교우위의 원인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비교우위이지만 비교우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기후의 차이, 요소부존의 차이, 그리고 기술의 차이이다.

기후의 차이 새우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미국보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더 낮은 주요 원인은 새우 양식에 필요한 높은 수온이다. 베트남은 이를 갖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기후의 차이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열대국가들은 커피나 설탕, 바나나, 새우와 같은 열대특산품을 수출한다. 온대지방의 국가들은 밀이나 옥수수과 같은 작물을 수출한다. 어떤 무역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칠레산 포도나 뉴질랜드산 사과가 겨울에 배달되는 일은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요소부존의 차이 캐나다는 임업제품—목재 및 그 가공품인 펄프, 종이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러한 수출은 캐나다 벌목 노동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가 임업제품에 비교우위를 갖는 이유는 캐나다의 노동인구당 삼림면적비율이 미국의 노동인구당 삼림면적비율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노동이나 자본과 마찬가지로 삼림지는 생산요소이다. 생산요소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투입물이다. (제2장에서 생산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및 인적 자본이 있음을 배웠다.) 역사적·지리적인 이유로 가용한 생산요소의 구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비교우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비교우위와 가용요소 사이의 관계는 국제무역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 헷서-올린 모형(20세기 전반 두 스웨덴 경제학자에 의해 개발된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헷서-올린 모형의 기본개념은 요소풍요도와 요소집약도이다. 요소풍요도는 그 요소의 공급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얼마나 풍부한가를 나타낸다. 요소집약도는 생산하는 재화에 따라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은 정유 산업이 의류 산업보다 훨씬 많다. 재화 간의 이러한 차이를 경제학자들은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란 용어로 표현한다. 정유 산업은 자본/노동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자본집약적인 반면, 자동차 좌석 생산은 노동/자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집약적이다.

헷서-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에 의하면 한 국가는 그 국가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정유 산업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스마트폰 생산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다.



Johner Images/Alamy

캐나다가 임업제품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삼림면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대한 기본 직관은 매우 간단하며 기회비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어진 요소의 기회비용—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창출되는 가치—은 그 요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할수록 더 낮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저숙련 노동자가 풍부하다. 따라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낮다.

핵서-올린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극적인 예는 의류 무역이다. 의류 생산은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그것은 많은 실물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고등교육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와 같이 노동이 풍부한 국가들이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이 요소부존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사실로부터 또 다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흔히 국가 간 생산의 특화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즉 흔히 수입되는 재화의 국내 생산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미국의 경우 원유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므로 미국에 원유를 수출한다. 미국은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의료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기기를 수출한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어느 정도의 원유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텍사스와 알래스카 등 국내 원유매장(그리고 다른 곳에 매장되어 있는 오일셰일) 규모가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의 수요와 공급 분석에서 우리는 불완전 특화를 원칙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 특화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무역에 이득이 있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의 차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은 미국과 여타 지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여 단연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일본이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갖게 된 것은 기후의 영향이 아니었다. 또한 요소부존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가 희소하다는 것 외에 일본의 가용요소 구성은 다른 선진국과 매우 유사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비교우위는 사실 그 나라의 생산자들에 의해 개발된 우수한 생산기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 생산기술로 인해 그들은 주

탐구자를 위하여 |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과 국제무역



국제무역에 관한 분석들은 대부분 국가 간의 차이—기후, 요소부존, 기술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들의 비교우위를 발생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해 왔다. 그것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다.

생산에 투입된 노동과 다른 자원들의 생산성이 생산량에 따라 증가할 때 그 재화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생산량을 10% 증가시키는 데 노동 8%와 원재료 9% 증가로 충분할 수가 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는 산업의 예로는 자동차, 정유, 대형 제트기 제조업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규모 자본지출을 필요로 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의 증가(규모의 경제라고도 불린다)는 소기업보다

대기업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산업이 단 하나의 기업으로 구성되는 독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으로 인해 국제무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재화의 생산에 규모에 대한 수익의 증가가 있으면 생산을 소수의 지역에만 집중하여 각 지역이 대량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그 재화가 소수의 국가에서만 생산되어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흔히 인용되는 예는 북미의 자동차 산업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지만 특정 자동차나 부품은 두 국가 중 한 국가에서만 생산되어 수출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무역 총액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선진국 간 공산품의 무역에서는 아마도 규



자동차 산업의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으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국제무역이 증가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

어진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다.

자동차에 대한 일본의 비교우위는 기술-생산에 사용되는 기법-격차로 인한 비교우위의 한 예이다.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소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에는 경험에 의해 축적된 지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계 생산에 대한 스위스의 비교우위는 시계 제작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 가지 기술혁신이 한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까닭에 기술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제2장의 ‘기업사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자동차 공장들도 절약형 생산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일본 경쟁자들과의 생산성 격차를 많이 좁혀 놓았다. 또한 유럽의 항공기 산업도 미국 항공기 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 놓았다. 그러나 주어진 한 시점에서는 기술 격차가 비교우위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현실 경제의 이해



홍콩 셔츠의 몰락

홍콩의 성장은 20세기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경제적 성공의 한 예이다. 19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아직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국경 너머 내륙지방과 경제관계가 끊어진 고립된 도시였다. 그때까지 홍콩은 중국으로의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홍콩이 곧 쇠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홍콩은 번창하여 1인당 GDP가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현재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특별자치구로 남아 있다.)

번영의 길을 걷는 동안 홍콩의 성장은 섬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였다. 1980년 홍콩의 의류와 섬유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는 45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체 고용의 20%에 가까운 숫자다. 이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수출용, 특히 대미 수출용 의류-셔츠, 바지, 드레스 등-제조에 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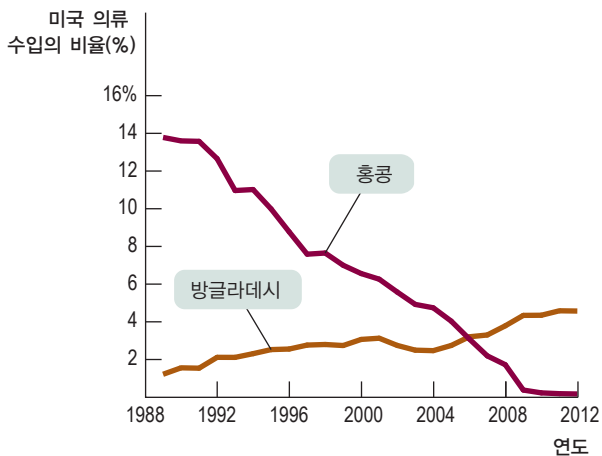
그러나 그 이후 홍콩의 섬유 산업은 그 규모에서 크게 감소하였다-사실상 거의 소멸되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의류 수출도 소멸되었다. <그림 5-4>에는 1989년 이후 미국 의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율과 이 산업에 새로 뛰어난 방글라데시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홍콩은 이 그래프에서 사실상 사라져 간 반면 방글라데시의 비중은 최근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홍콩이 셔츠, 바지 등을 제조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를 상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도시의 의류 제조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도시가 다른 일들에 더 유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류 제조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비교적 저기술 산업이다. 이 산업의 비교우위는 항상 가난하고 노동집약적인 경제가 가지고 있었다. 홍콩은 더 이상 이런 경제가 아닌 반면, 방글라데시는 이런 경제이



Jemiffer Thernes/Getty Images

그림 5-4 교육, 기술집약도와 무역



출처 :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다. 홍콩의 섬유 산업은 이 도시의 성공의 제물이 된 것이다.

이해 돕기 5-1

1. 미국의 경우 옥수수 1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전거 50대이다. 중국에서 자전거 1대의 기회비용은 옥수수 0.01톤이다.
 - a. 비교우위의 패턴을 구하라.
 - b. 미국은 자급상태에서 옥수수를 생산하지 않으면 20만 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고, 중국은 자급상태에서 자전거를 생산하지 않으면 3,000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다.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수평축에는 자전거를, 수직축에는 옥수수를 표시하여 각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을 그려 보라.
 - c. 국제무역을 통해 각 국가는 특화를 하게 된다. 미국은 1,000톤의 옥수수와 20만 대의 자전거를 소비하고, 중국은 3,000톤의 옥수수와 10만 대의 자전거를 소비한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생산점과 소비점을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설명해 보라.
2. 헥서-올린 모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무역 패턴을 설명해 보라.
 - a. 프랑스에서 미국으로의 와인 수출, 미국에서 프랑스로의 영화 수출
 - b. 브라질에서 미국으로의 신발 수출, 미국에서 브라질로의 신발 제조기계 수출

(해답은 책 뒤에)

복습

-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 경제에서 수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국제무역과 다른 국제적 연관성의 증가를 **국제화**라 한다. 극도로 높은 국제무역을 **초국제화**라고 한다.
- 국제무역은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한다. **리카도의 국제무역 모형**은 국가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 **자급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 즉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우위의 주요 원인에는 국제 간 기후의 차이, 요소부존의 차이, 기술의 차이가 있다.
- **헥서-올린 모형**은 비교우위가 요소부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산되는 재화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고 국가마다 자국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수요, 공급과 국제무역

비교우위에 대한 단순모형들은 국제무역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제무역의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무역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수입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음 수출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입의 영향

〈그림 5-5〉는 국제무역을 잠시 무시한 채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국내수요곡선, 국내공급곡선, 그리고 국내가격 또는 자급가격이 그것이다.

국내수요곡선(domestic demand curve)은 어떤 재화에 대한 한 국가 주민들의 수요가 그 재화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국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그 재화를 수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제무역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와 해외 소비자들의 구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수요곡선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만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국내공급곡선**(domestic supply curve)은 한 국가 내의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이 그 재화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국제무역을 도입하고 나면 국내 생산자들의 공급과 해외공급 — 해외로부터 들여온 공급 —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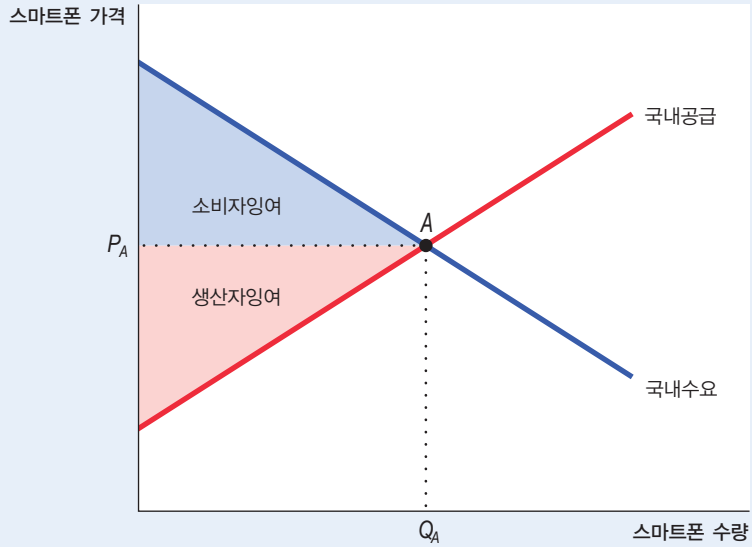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국제무역이 없는 자급상태에서는 이 시장의 균형은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의 교점인 점 A에서 결정될 것이다. 스마트폰의 균형가격은 P_A 이고, 생산·소비되는 스마트폰의 균형거래량은 Q_A 가 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모두 국내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국내수요곡선(domestic demand curve)은 한 재화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 재화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국내공급곡선(domestic supply curve)은 국내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이 그 재화가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그림 5-5 자급상태에서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국제무역이 없을 때 국내가격은 P_A 이며, 이는 국내공급곡선과 국내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자급상태의 가격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래량은 Q_A 이다. 소비자잉여는 파란색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나고, 생산자잉여는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재화의 **국제가격**(world price)은 그 재화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구매자들이 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순이익을 일컬어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자 잉여는 판매자들이 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순이익이다.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이 장 부록에서 더 상세히 분석한다. 자급상태에서 소비자잉여는 <그림 5-5>에서 파란색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생산자잉여는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그리고 총잉여는 이 색칠된 두 삼각형의 면적의 합과 같다.

이제 수입을 허용하여 이 시장을 개방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수입품의 공급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가정은 **국제가격**(world price)으로 알려진 주어진 가격에서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해외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도 여기서 이 가정을 도입한다. <그림 5-6>에는 스마트폰의 국제가격 P_w 가 자급상태의 국내시장가격 P_A 보다 낮은 상황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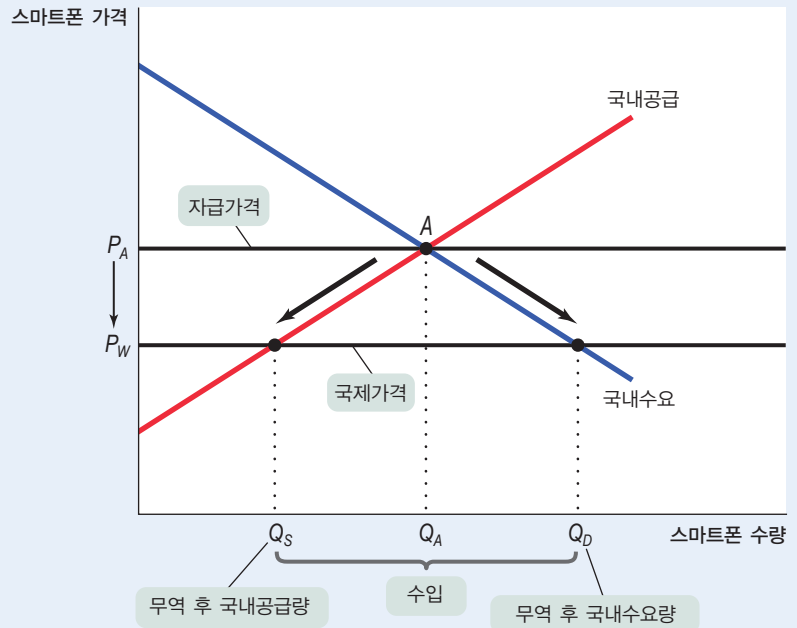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입상들이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낼 수 있다. 수입된 스마트폰은 국내시장의 스마트폰 공급을 증가시켜 국내시장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스마트폰의 수입은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결과가 <그림 5-6>에 그려져 있다. 수입으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은 P_A 에서 P_w 로 하락한다. 국내 소비자가 수요하는 스마트폰의 수량은 Q_A 에서 Q_D 로 증가하고 국내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는 수량은 Q_A 에서 Q_S 로 하락한다. 국내수요량과 국내공급량의 차이 $Q_D - Q_S$ 는 수입으로 채워진다.

이제 수입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스마트폰 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림 5-7>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다. W, X, Y, Z 네 면적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5-5>에서 본 자급상태의 소비자잉여는 W에 해당하고 자급상태의 생산자잉여는 X와 Y의 합에 해당한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까지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소비자잉여는 X와 Z의 면적을 합한 것만큼 증가하여 W, X, Z의 합과 같아진다. 동시에 생산자잉여는 X만큼 감소하여 이제는 Y와 같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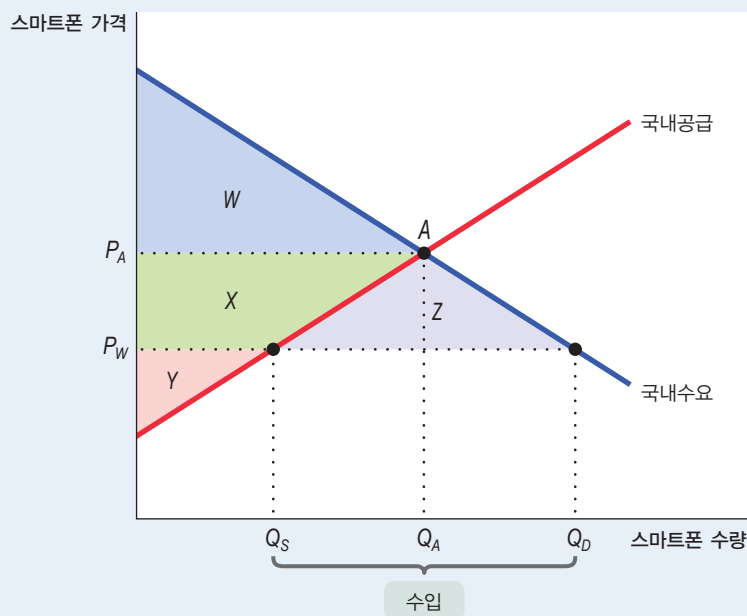
그림 5-6 수입 후 국내시장

그림에서 스마트폰의 국제가격 P_W 는 자급상태의 가격 P_A 보다 낮다. 이 국가가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자급상태일 때의 P_A 에서 국제가격 P_W 로 떨어지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수요량은 Q_A 에서 Q_D 로 증가하고, 국내공급량은 Q_A 에서 Q_S 로 감소한다. P_W 에서 국내수요량과 국내공급량 간의 차이, $Q_D - Q_S$ 는 수입으로 채워진다.



<그림 5-7>의 표에 스마트폰 시장이 수입에 대해 개방되었을 때 나타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요약해 놓았다. 소비자는 $X+Z$ 의 면적에 해당하는 잉여를 얻고, 생산자는 X 의

그림 5-7 잉여에 대한 수입의 영향



	잉여의 변화	
	증가	감소
소비자잉여	$X+Z$	
생산자잉여		$-X$
총잉여의 변화	$+Z$	

국제무역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P_W 로 떨어지면, 소비자잉여는 증가($X+Z$ 의 면적)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X 의 면적)한다. 소비자들의 이익이 생산자들

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국가 전체로서는 이득(Z 의 면적)을 본다.

면적에 해당하는 잉여를 잃는다. 따라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스마트폰 시장에 발생한 총잉여—은 Z의 면적만큼 증가한다. 무역의 결과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은 손실을 보지만 소비자들의 이득이 생산자들의 손실보다 더 크다. 이것은 중요한 결과이다. 우리는 방금 수입에 대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총잉여가 증가함을 보았다. 이것은 국제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국가 전체로서는 이득을 보지만 어떤 집단—이 경우에는 국내의 스마트폰 생산자들—은 국제무역의 결과로 손실을 본다는 것도 알았다. 곧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뿐 아니라 손실을 보는 사람도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역정책과 관련된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음에는 한 국가가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를 보자.

수출의 영향

〈그림 5-8〉은 한 국가가 한 재화—여기서는 트럭—를 수출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여 준다. 이 예에서는 자급상태의 국내가격 P_A 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어졌던 국제가격 P_W 에서 트럭을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높은 국제가격으로 인해 수출업자들은 국내에서 트럭을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국내 트럭을 구매함에 따라 국내가격은 상승하여 국제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이 결과로 국내 소비자의 수요량은 Q_A 에서 Q_D 로 감소하고 국내 생산자의 공급량은 Q_A 에서 Q_S 로 증가한다.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의 차이인 $Q_S - Q_D$ 는 수출된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로 인해 수출국의 총잉여는 증가하지만 역시 이득을 보는 사람뿐 아니라 손실을 보는 사람도 발생한다. 〈그림 5-9〉는 트럭 수출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무역이 없다면 트럭 가격은 P_A 일 것이다. 무역이 없을 때 소비자잉여는 W와 X 면적의 합과 같고, 생산자잉여는 Y의 면적과 같다. 무역의 결과로 가격은 P_A 에서 P_W 로 상승하고, 소비자잉여는 W로 감소하며, 생산자잉여는 Y+X+Z로 증가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X+Z만큼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X만큼 손실을 보며, 그림에 있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전체

그림 5-8 수출 후 국내시장

그림에서 국제가격 P_W 는 자급상태에서의 국내가격 P_A 보다 높다.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국내 공급량 일부가 수출된다. 국내가격은 자급상태에서의 가격 P_A 에서 국제가격 P_W 로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수요량은 Q_A 에서 Q_D 로 감소하고, 국내공급량은 Q_A 에서 Q_S 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의 차이 $Q_S - Q_D$ 는 수출된다.

